

2020년 9월 2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속 반발 매수세 유입

니콜라, 은행, 헬스케어 업종 영향으로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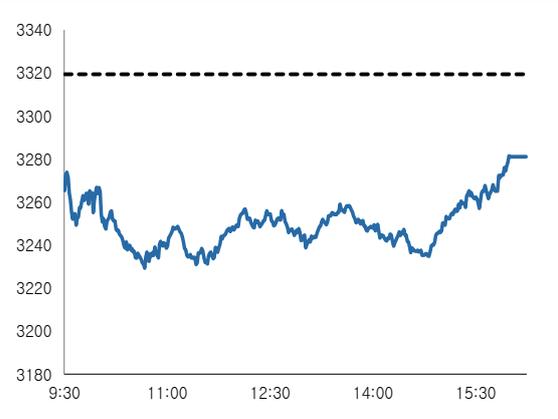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언택트주 강세 Vs. 비 언택트주 부진

미 증시는 아시아 시장 하락 요인 이었던 니콜라(-19.33%) 관련 불확실성과 은행들의 불법 거래 관련 부담으로 하락 출발.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 영국의 섀다운 가능성이 부각된 점, 그리고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도 부담. 다만, 장 초반 급락하던 대형 기술주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나스닥이 저점 대비 낙폭이 2% 넘게 축소된 점도 특징(다우 -1.84%, 나스닥 -0.13%, S&P500 -1.16%, 러셀 2000 -3.35%)

미 증시는 니콜라(-19.33%), 은행주 급락, 정치 불확실성, 코로나 관련 소식에 의해 변화. 먼저 니콜라는 CEO 인 밀턴이 이사회에서 사임을 발표. 여기에 일부 언론에서는 밀턴이 FBI 에 체포 되었다고 보도.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지만 시장이 기업의 정당한 가치 평가 보다는 유동성에 의해 강세를 보여왔던 점을 감안 관련 소식은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여타 종목들에 대한 매물 출회를 야기. 이 결과 테슬라가 한 때 8% 하락하고 애플도 3.5% 급락을 야기. 그러나 지난 3주 동안 하락했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테슬라와 애플이 상승 전환하는 등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의 낙폭 저점 대비 2.4% 축소되는 등 변동성은 확대

한편, JP 모건(-3.09%) 등 은행주가 급락. 은행들이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국(FinCEN)에 보낸 문서들이 유출. 금융기관은 수상한 거래에 대해 핀센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과거 1~2 곳의 자료 유출이 아니라 여러 은행들의 보고서 유출. 이 결과 제출기관(은행)과 개인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점이 은행주 급락 요인. 여기에 대 법관 임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대법원의 의료법에 대한 최종 판결(11 월 10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CNC(-8.41%) 등 제약, 헬스케어 업종의 급락을 야기. 또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2 차 섀다운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킹닷컴(-4.61%), 델타항공(-9.20%) 등이 급락하고 줌 비디오(+6.78%), 넷플릭스(+3.70%)등 언택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를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89.39	-0.95	홍콩항셱	23,950.69	-2.06
KOSDAQ	866.99	-2.46	영국	5,804.29	-3.38
DOW	27,147.70	-1.84	독일	12,542.44	-4.37
NASDAQ	10,778.80	-0.13	프랑스	4,792.04	-3.74
S&P 500	3,281.06	-1.16	스페인	6,692.30	-3.43
상하이종합	3,316.94	-0.63	그리스	630.32	-4.29
일본	23,360.30	+0.18	이탈리아	18,793.35	-3.7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테슬라 -7.93% → +1.64%, 애플 -3.50% → +3.03%

니콜라(-19.33%)은 CEO인 밀턴이 사임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밀턴이 애리조나 공항에서 FBI에 체포 되었다는 보도로 급락했으나 JP모건이 밀턴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언급하자 낙폭이 축소되었다. GM(-4.76%)도 동반 하락했다. 테슬라(+1.64%)는 머스크가 3분기에 자동차 판매가 급증했다고 언급하자 상승 출발 했으나, 차익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8%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로 재차 상승 전환했다. 애플(+3.03%)은 장중 차익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3.5% 급락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MS(+1.07%)도 상승 전환했다.

JP모건(-3.09%), BOA(-2.94%), 웰스파고(-4.34%) 등 금융주는 핀센에 보낸 보고서가 유출되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로 하락했다. CNC(-8.41%), 유니버설 헬스(-8.56%) 등 헬스케어 업종과 J&J(-2.73%), 화이자(-1.67%) 등 제약주 등은 대법원의 의료법 심의를 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하락했다. 캐터필라(-4.63%), 3M(+4.83%)등 산업재와 부킹닷컴(-4.61%), 라스베이거스 샌즈(-5.22%)등 여행주, TJX(-3.30%) 등 소매판매 업종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출회되며 하락했다. NVIDIA(+2.69%), 넷플릭스(+3.70%), 줌비디오(+6.78%) 등 언택트주와 인튜이티브(+2.52%) 등 소프트웨어는 강세를 보였다. 오라클(+1.79%), 월마트(+1.32%)는 틱톡 인수 기대로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86%	대형 가치주 ETF(IVE)	-2.20%
에너지섹터 ETF(OIH)	-7.28%	중형 가치주 ETF(IWS)	-2.91%
소매업체 ETF(XRT)	-1.99%	소형 가치주 ETF(IWN)	-4.28%
금융섹터 ETF(XLF)	-2.50%	대형 성장주 ETF(VUG)	-0.02%
기술섹터 ETF(XLK)	+0.86%	중형 성장주 ETF(IWP)	+0.0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4%	소형 성장주 ETF(IWO)	-2.42%
인터넷업체 ETF(FDN)	+0.90%	배당주 ETF(DVY)	-2.83%
리츠업체 ETF(XLRE)	-2.70%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3%
주택건설업체 ETF(XHB)	-1.8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82%
바이오섹터 ETF(IBB)	-2.56%	미국 국채 ETF(IEF)	+0.18%
헬스케어 ETF(XLIV)	-1.85%	하이일드 ETF(JNK)	-0.90%
곡물 ETF(DBA)	-1.74%	물가연동채 ETF(TIP)	-0.18%
반도체 ETF(SMH)	+0.05%	Long/short ETF(BTAL)	+2.2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42.45	-3.27%	-1.08%	-10.02%
소재	397.92	-3.41%	-3.83%	+2.30%
산업재	641.33	-3.38%	-3.19%	-0.51%
경기소비재	1,156.13	-1.10%	-4.07%	-4.79%
필수소비재	646.37	-0.67%	-2.82%	-1.77%
헬스케어	1,203.72	-1.84%	-2.33%	-3.17%
금융	398.24	-2.49%	-3.97%	-1.23%
IT	1,978.14	+0.76%	-2.32%	-4.49%
커뮤니케이션	190.89	-1.19%	-3.60%	-4.70%
유틸리티	293.25	-0.58%	-2.67%	-2.39%
부동산	214.06	-2.74%	-4.92%	-3.6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의 전환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6% MSCI 신흥 지수 ETF 는 0.92%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5.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니콜라 사태와 더불어 글로벌 은행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특히 니콜라 관련 소식은 일부 테마성 종목군에 대한 매물 출회를 야기시켜 코스닥의 낙폭이 컸다. 오늘 미 증시 하락 요인은 전일 한국 증시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미 증시 부진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근 하락을 이어가던 일부 대형 기술주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견고함을 보인 점도 우호적이다.

그렇지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인 QQQ(+0.39%)에서 하루 유출 규모로는 IT 버블 이후 최고치인 35 억 달러가 빠져 나가는 등 수급적인 불안이 높아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업 가치 보다는 유동성에 의해 강세를 보여 왔던 점을 감안 이러한 자금 이탈은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주 FOMC 에서 연준이 추가 유동성 확대 정책에 신중함을 표명했던 점을 감안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미 대선 불확실성이 격화될 시기(대선 TV 토론 29 일)에 추석 연휴를 맞이한다는 점을 감안 차익 욕구가 높아질 수 있어 한국 증시는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경기 회복 둔화 우려 확산

8 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는 전월(2.54)나 예상(1.88)을 크게 하회한 0.79 로 발표되었다. 3 개월 평균도 전월(4.23) 보다 둔화된 3.05 로 발표돼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항목을 보면 생산 및 수입(1.26→0.23), 고용(0.65→0.63), 주문 및 재고(0.53→0.04), 개인 소비 등(0.09→0.04) 등 대부분이 둔화 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수요 둔화 및 공급 증가 우려로 4% 넘게 급락

국제유가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함에 따라 원유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하락했다. 여기에 주말에 리비아의 국가 석유회사인 NOC 가 원유 수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발표해 공급 증가 우려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4% 넘게 하락하며 마감했다.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산 및 유로화등의 약세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로화 강세에 대해 매우 주의하고 있으며 통화정책 때 이를 고려 한다고 주장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의 2 차 섀다운 가능성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재확산과 주식시장 급락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특히 영국이 2 차 섀다운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과 유럽 각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점이 부담을 줬다. 여기에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확산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선거 이전 임시 예산안과 추가 부양책이 통과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은 제한 되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강세가 매물 출회를 높여 2.6%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부진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16% 철근은 0.69%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9.31	-4.38	+5.50	Dollar Index	93.550	+0.67	+0.54
브렌트유	41.44	-3.96	+4.62	EUR/USD	1.1769	-0.60	-0.82
금	1,910.60	-2.62	-2.70	USD/JPY	104.69	+0.11	-0.98
은	24.387	-10.11	-10.85	GBP/USD	1.2814	-0.80	-0.25
알루미늄	1,779.50	-0.73	-1.17	USD/CHF	0.9147	+0.34	+0.69
전기동	6,691.50	-1.78	-1.54	AUD/USD	0.7224	-0.89	-0.88
아연	2,458.50	-3.13	-0.89	USD/CAD	1.3300	+0.73	+0.94
옥수수	369.75	-2.31	+0.07	USD/BRL	5.396	+0.11	+2.35
밀	554.75	-3.52	+1.65	USD/CNH	6.7934	+0.21	-0.22
대두	1,022.50	-2.01	+2.30	USD/KRW	1158.00	-0.20	-2.15
커피	112.00	-1.32	-8.98	USD/KRW NDF1M	1165.85	+0.07	-1.3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69	-2.46	-0.32	스페인	0.250	-3.20	-3.00
한국	1.495	-1.00	-1.70	포르투갈	0.267	-3.00	-3.70
일본	0.015	0.00	-0.60	그리스	1.073	+0.20	-0.80
독일	-0.530	-4.50	-5.00	이탈리아	0.917	-4.40	-10.20